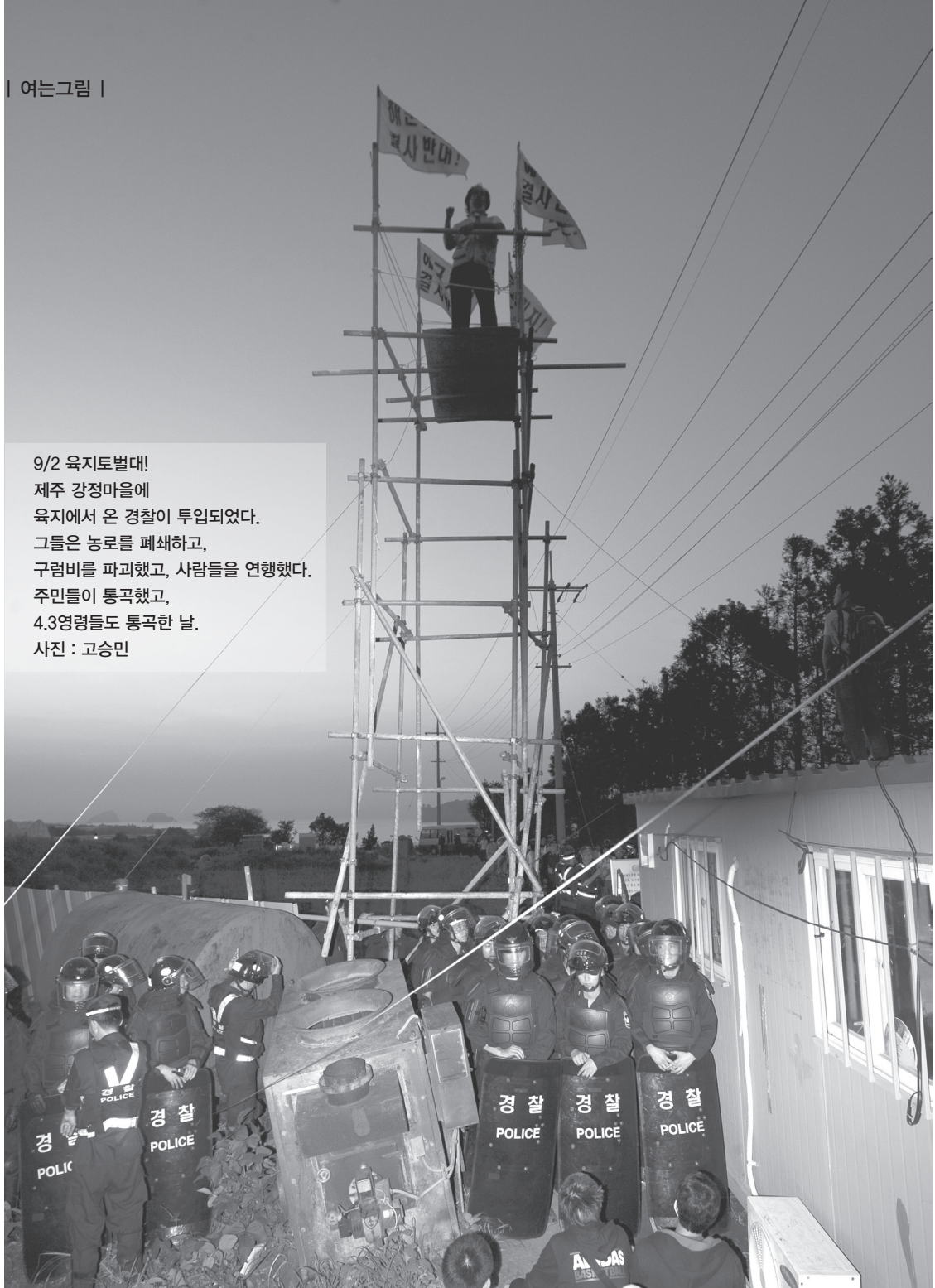


9/2 육지토벌대!
제주 강정마을에
육지에서 온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들은 농로를 폐쇄하고,
구럼비를 파괴했고, 사람들을 연행했다.
주민들이 통곡했고,
4.3영령들도 통곡한 날.
사진 : 고승민





▲ 8월 24일 오전 11시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져분' 철회 기자회견

울지마 구럼비, 힘내요 강정

8월 24일 건설사가 불법으로 반입한 대형 크레인
인을 조립하려 하자, 강동군 마을회장(아래) 등
이 이를 저지하다가 연행되었다. 강동군 마을회
장과 같이 연행되었던 김동원 지킴이(오른쪽 아래)
와 할망물 식당의 셰프 중환 삼촌(맨 오른쪽)도 구
속되었다.
8월 29일에는 법원이 해군의 편을 들어, 주민들
과 평화활동가들의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9월 1일에는 김종일 현
장팀장(왼쪽 아래)이 연행, 구속되었다.
9월 2일 새벽, 육지에서 내려온 경찰병력이 농로

삼거리를 침탈하였다. 33명이 연행되었고, 제주도
대책위 고유기, 홍기룡 위원장이 구속되었다.
9월 3일,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강정에 모여 해
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해군의 펜스가 구럼비 바위로 이르는 농로를 가로
막고, 펜스 안쪽으로 거대한 철조망을 쳤다. 강정포
구쪽 올레길도 폐쇄되었고 바다쪽에도 철조망으로
둘러쳐졌다. 9월 25일 현재, 많은 구럼비 바위가 깨
졌지만, 사진전시관 앞 구럼비 바위 대부분은 건재
하다. 10월 1일, 두번째 생명평화 축제가 강정에서
열린다. (사진 : 진달래산천, 황윤미, 오미정)



▲ 9월 7일 구럼비 바위를 깨며 공사를 시작한 해군과 삼성



▼ 9월 20일,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비상 시국회의



▼ 9월 8일, 제주 공항 해군기지 반대 캠페인



▼ 9월 19일, 노암 촌스키를 만난 고길천 화백 (사진:신은정_오마이뉴스)



▼ 9월 20일, 미대사관 앞에서 열린 자주통일평화행동



제주해군기지가 과연 해양수송로를 지켜 줄 것인가?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기동전단을 배치하여 제주 남방 해역과 해양수송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군사력 제일주의 발상으로 여기에는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몇 가지 허구가 도사리고 있다.

첫째, 중국 등 주변 연안국들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허구다. 20년 전부터 ‘중국 위협론’이 대두했지만 중국 등의 주변국이 해양수송로를 위협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해외 에너지 수입, 상품 수출 등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등이 자국 연안의 해양수송로를 차단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의 세계 1, 2위 해군력을 보유한 미·일 등에 의한 보복적인 해양수송로 차단으로 스스로가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중국이 해양수송로를 차단한다고 해도 절세 열세의 우리 해군력으로는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앞으로도 국방비가 우리의 2~3배에 달하는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설령 우리가 대중 우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함대가 중국의 해양수송로 차단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동·남중국해는 중국 앞마당으로 우리 해군이 작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의 거리상 이점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셋째, 반대로 제주도 연안 해역은 우리의 근해로 여기까지 진출한 중·일 해군에 대해 우리 해군이 공군력과 병참 지원에서 우위를 갖게 됨으로써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어도(5광구)에 대한 대응에서도 우리 해·공군이 중·일 본토에서 발진하는 해·공군력에 비해 거리상 유리한 조건에 있어 굳이 제주 기지에서의 출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넷째, 소위 해적 등이 제주 남방 해역이나 해양수송로 상의 민간 상선 등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대형함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다 기동성있는 소형 호위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법적으로 해경의 주 임무이자 해경은 이미 이를 위한 충분한 장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제주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한편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서남방 항로는 해상수송로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항로(필리핀제도-보르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해양수송로는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침략경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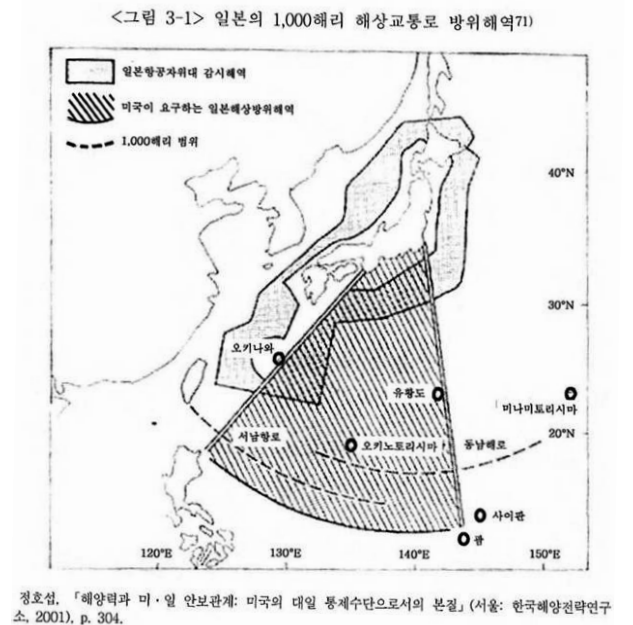
오 동쪽 해로 등)가 적지 않다.

이렇듯 특정 국가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해군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외교적 과제이며, 제주 남방 근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나 해적 등에 의한 해양수송로 위협은 현재의 해군·경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로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대규모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대형 함정 위주의 기동전단 운영은 수조 원에 달하는 국가 자원의 낭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에 편승하려는 것이다. 해양수송로는 와인버거 전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침략경로’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허구로 밝혀진 ‘소련 위협론’을 명분으로 일본 열도 ‘불침함모론’과 ‘1000해리 해양수송로 방어(?)’를 위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관철시킨 바 있다. 이제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제주도 ‘불침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소요가 처음 제기된 시점(1993년)이 냉전 해소 직후 미국에 의한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고, 또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시점(2007년)이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2006년)한 직후라는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전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평택미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소위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육상 전진기지라면 제주 해군기지는 서태평양 상에서 미 태평양 함대가 중국 포위를 포함한 해상 패권전략을 행사하기 위한 출발지가 되는 셈이다. 



법적 근거 없는 해군의 평시 해상교통로보호 임무

박 기 학 평화 · 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해군은 ‘전쟁억제’와 함께 해군의 중요역할 중의 하나로 ‘해상교통로 보호’를 꼽으면서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한 것도 남방해역 교통로 보호와 해저자원 확보를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해군은 해상교통로 보호가 ‘아축 상선의 이동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는 어디까지나 명분이며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해군의 임무로 하겠다는, 이른바 대양해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이다. 그러나 해상교통로 보호가 평시 해군의 역할이라는 해군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리 헌법(제5조)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제1항)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제2항)를 수행하는 것을 국군의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영역이며 자유 항해가 보장되는 공해 영역이다. 해상교통로 상에서 평시에 아축 상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 등의 군사태세를 갖춘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적이고 자위적인 국토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 제3조 제2항(2011. 7. 14 개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 · 훈련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육군이나 공군과 구별되는 해군의 고유한 작전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상작전의 지리적 범위나 목적은 상위법인 헌법의 ‘국토방위’에 의해서 제한된다.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위적이고 방어적인 해상작전만이 인정된다.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과 외무공무원의 재외국민 보호 · 육성 의무를 규정한 외무공무원법 제5조가 해군의 평시 해상교통로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가의 보호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관할권 밖의 영역이며 자유 항해가 보장되는 공해 영역이다. 해상교통로 상에서 평시에 아축 상선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는데도 해상교통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 등의 군사태세를 갖춘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평화주의적이고 자위적인 국토방위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 선박이나 군함 등이 타국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공해에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평시 해군의 임무로 설정할 법적 근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를 받는 ‘재외국민’의 정의¹⁾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선원수첩을 가지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박승조원이나 우리의 국적선 또는 화물이 재외국민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정부의 의무내용과 범위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²⁾

국제법적으로 보면 공해에서는 항해의 자유가 보장되고 우리 선박이나 군함 등이 타국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엔총회의 ‘침략의 정의’도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의 육군, 해군, 공군 또는 선대 및 항공기대에 대한 공격”을 침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공해에서 무력공격을 받을 때 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해상교통로 보호를 평시 해군의 임무로 설정할 법적 근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해상교통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평시 공해상의 해군활동은 필연적으로 중국, 일본, 북한 등의 대응조치를 불러와 무력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쟁억제’ 역할에 역효과를 낸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보장되므로 굳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군대가 필요치 않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문제된다면 이는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엔해양법협약은 대항 또는 인접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어 협약위반이 된다.

우리 상선이 해상교통로 상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해난사고나 아니면 비국가적인 해적 또는 테러 위협이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3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은 해경의 주요 업무로 ‘경비구난,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치안, 해양환경보전, 해양오염방제, 국제교류협력’(해경 홈페이지

1)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2조(정의)는 “이 법에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등록법’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런 이유 등으로 해군의 배형수 전 해군전투발전단장은 “결국, 해군이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있는 ‘해상교통로 보호’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배형수, “국가 해양력 발전과 해상교통로 보호”, 『제3회 해양정책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대한민국해양연맹, 2006. 11., 50쪽)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 등을 들고 있다.

군은 아무리 군 작전과 관계되는 것이라도 직접적으로 치안유지를 담당하지 않는다. 군대 주변의 교통이나 범죄예방 등 활동도 경찰의 몫이다. 다만, 계엄 시, 군사작전을 위한 민간인의 소개, 군대 내부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치안유지 즉 경찰작용을 할 뿐이다. 이는 바다라고 다르지 않다. 정부조직법의 위 조항에 따르면 해적 또는 테러로부터의 우리 선박의 보호는 해경의 임무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적법하다.

해양사고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86.4%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였고 공해 해양사고는 2.3%(37척)에 불과하며 공해 해양사고에 대해서도 해경이 대응하고 있다. 또 해경은 EEZ에서의 해양권의 보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총기로 공격받은 사례가 한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해경은 1,000~5000톤급의 대형함정 29척을 포함하여 총 288척을 보유하고 있고 광역초계용 비행기 1대 등 항공기 19대를 보유하는 등 원양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전력과 경험)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의 해상대테러(해적) 활동으로 해경과 러시아 국경수비부가 2001년부터 정례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2010년에는 북태평양해상치안기관 6개국 이 모여 다자간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2011년 해경백서』) ‘아시아 해양경비책임자회의’나 ‘아시아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 협정’처럼 동아시아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국제협조체제에도 참가 중이다. 그리고 우리의 해상교통량이 집중돼 있는 동남아시아항로의 경우 해적 건수가 전세계의 10%(2009년 45건)로 가장 낮으며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군이 해군이 해경임무와 중복되게 해상교통로 보호를 자기의 일반적 임무로 할 현실적 필요성도 없다.

그리고 우리 국적선적취율(수입물량기준)이 2009년 기준으로 20.8%에 불과해 설사 해군이 아축 상선의 이동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해상교통로 보호를 자기임무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9%정도의 외국선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도 별로 크지 않다.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도 해경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며 ‘생계형 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군사적 접근보다는 소말리아의 경제적·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병행 또는 우선되어야 할 문제다.

재정적 측면에서도 해경이 해상치안 예산과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군의 해상교통로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부대 운영은 중복투자로 정부 예산 낭비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해군의 임무로 설정한다면 이는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자초하는 등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강정아, 미안해.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아 다행이야.

박 명 아 강정초등학교 교사

글 잘 쓰는 제주도 없고 어디에 글을 기고한 경험도 없는 처지에 강정마을 문제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말에 일 초도 망설임 없이 단박에 하겠다고 했다. 솔직히 마흔 조금 넘는 내 생애에 이렇게 빠른 의사 결정은 처음이다. 강정에 대한 왜곡된 시선들에 대해 부글부글 속 끓이던 내 마음을 어디든 드러내고 싶었고 강정마을에 대한 교육 희망 기사라면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어야겠기에 강정 아이들과 지내는 나보다 더한 책임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여름내내 전국을 뒤덮었던 그 해, 서울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첫 인연을 맺게 된 학교가 서귀포 강정초등학교. 평상시에는 건천으로 있다가 비 올 때만 물이 흐르는 제주의 일반 하천에 비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팔팔 흘러내리는 강정천과 악근천이 있는 바닷가 강정마을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땅이 비옥하여 농사짓기 좋고 마을 사람들이 고루 잘 살아

‘일강정’으로 부르는 자부심 넘치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서울 큰 학교에서만 근무하다 겁 없이 덩벼든 제주도 6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 근무는 조금의 낭만도 허용하지 않는 생활이었고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업무에 치이는 시간들은 지옥 같았다. 일 년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2년을 휴직한 후 복직한 다음에는 한 해만 더 다니다 2006년 결국 큰 학교로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기간 동안 내게 강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괴상한 사고방식의 관리자들을 의미했고 독특한 문화를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주도 그 자체였다. 2007년 여름부터 들려온 해군기지와 강정 주민들의 투쟁 소식도 안타깝지만 먼 나라 이야기 들듯 흘려버리고는 했다. 마을 문제를 제주도 전체에 알리려는 그분들의 노력들이 삼보일배, 제주도 순례, 도청 앞 농성 등의 형태로 언론에 오르내릴 때도 마음은 아팠지만 그냥 그 때뿐이었다.

그러던 작년 11월, 이제는 제주도 사람이 다 되어버린 가슴과 이런 저런 학교 일들에 조금 단단해진 마음이 떠날 때 다시는 근처에도 가지 말자 다짐했던 강정으로 나를 이끌었고 덜컥 내신을 내고 말았다. 5년 만에 다시 찾아온 강정마을은 떠나올 때의 평온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영토 분쟁



중인 국경 마을과 같은 인상을 풍겼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몸부림처럼 곳곳에서 펄럭이는 깃발과 현수막들이 ‘왜 이제야 왔냐, 그때는 왜 좀 더 강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냐?’ 라고 꾸짖는 것 같았다. 전쟁터와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3월, 4학년 24명 아이들과의 첫 만남. 부모들의 의견에 따라 해군기지 찬, 반으로 나뉘어져 갈기갈기 찢기고 상처받았을 것 같은 아이들은 뜻밖에도 천진난만했고 마을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했으며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지니고 있었다. 몽돌처럼 단단하고 순박한 아이들은 나의 기쁨이었다. 그리고 그 긴 투쟁의 시간 속에서도 아이들의 순수함이 다치지 않게 지켜준 마을 분들이 고마웠다. 우리는 학교, 강정천, 중덕바닷가, 구럼비, 강정포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학교 밖 마을 풍경은 늘 살얼음판이었다. 해군이 공사를 강행할 때마다 수업 시간에도 시시때때로 울리는 마을회관의 사이렌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뿔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비상사태에 숨죽였고 급하게 주민들을 부르는 그 소리가 애처러워 나는 눈을 질끈 감아야 했다.

강정 아이들은 여름 내내 강정천에 산다. 현장학습을 가도 마음 내키는 그대로 뛰어들어 첨병거리다가 물이 푹푹 떨어지는 차림새로 학교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런데 맑은 물이 철철 흘러넘치며 바다를 적시는 강정천과 사잇길 하나를 두고 불과 몇 미터 옆으로 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공사 구간 안에는 붉은발말뚝계,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종들의 서식지가 광범위하게 펼쳐

져 있고 1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바위인 구럼비(용암단괴)가 있다. 제주도 전체가 절대보존지역은 아니다. 그러나 강정 앞바다는 돌고래가 뛰놀고 연산호가 춤추고 은어가 올라오고 희귀생물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절대보존지역이었다. 해군기지 건설은 서귀포 다른 지역들에서 치열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강정마을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채택된 후 적절한 정보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어쩌다 딱 걸린 강정마을이 해군과 도의 먹이가 되어 버린 격이다. 제주도는 해군기지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 강정 앞바다를 절대보존지역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해군기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마을 일부 해군기지 반대론자가 외부 세력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거짓이다. 마을 주민들이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다 거짓이다. 지금 마을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지닌 공권력의 구속, 소환, 벌금에 맞서가며 마을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푹푹 뭉쳐 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용감하고 드높은 기상을 지닌 분들이다.

언론에서는 늘 찬성측과 반대측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비율이 80%를 넘고 우리 반 아이들도 대부분 우리 집은 반대라고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높인다. 그럴 때 부모님이 해군기지를 찬성하거나 보상을 받고 동참한 가정의 아이들 몇 명이 상처받지 않도록 살피는 것도 담임인 나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이 찬성하시건 아니건 그 아이들도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다. 학교는 해군기지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해군이나 마을공동체 모두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로서 나는 반대측보다 찬성측 아이들의 상처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연과 평

화가 시멘트에 묻혀 버린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의 감성은 본능적으로 구럼비를 좋아하고 붉은발말뚝계에게 애정을 퍼부었다. 스스럼없이 구럼비에서 맨발로 뛰어다니고 뒹구는 아이들의 모습은 더할 수 없이 행복해 보이고 자연스럽다. 해군기지가 세워지면 중덕바닷가와 그 속에서 함께 뛰놀았던 자연 속의 친구들은 모두 추억 속으로 완벽하게 숨어 버릴 것이다. 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동안에도 아이들의 사진기 속에는 해군기지로 인해 사라져가는 우리 마을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지난 6개월은 세상을 뒤덮을 것 같은 암울함과 한 가닥 희망을 사이에 두고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들고 버거웠다. 아이들에게 미안했고 종북좌파 또는 외부세력이라고 주요 언론에 왜곡 보도되고 있음에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고 오래도록 머물러주는 평화 운동가들이 고마웠다. ‘해군기지 건설되면 경제는 발전하겠지, 아님 말고’라며 좋아라 하거나 무관심한 제주도나 서귀포 사람들이 야속했고 자세한 내막은 알지도 못 하고 알려고도 안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국책 사업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나 폭력 집단,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멍청한 국민들이 미웠다.

나는 평화운동가도 아니고 생태 환경을 보존하려고 지독하게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다. 해군기지를 우리나라 어디에도 세우지 말자는 생각도 아니고 우리 마을에만 세우지 말자도 아니다. 다만 납득할만한 장소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자는 것이다.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법의 잣대로 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



가는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인위적인 환경보다는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러운 그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하나를 지켜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를 여러분들도 느끼고 강정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얼마 전 해군기지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그 참담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을 보았다. 여러분도 더 늦기 전에 와 보시라. 왜 세계 평화는 강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지를 깨달으시리라. 지난 여름은 강정 주민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운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더 엄청난 일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마을 분들이 다치지 않기를,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두 손을 모아 본다. 이틀 후 개학날, 아이들이 까맣게 탄 얼굴로 하얀 이를 드러내며 교실로 들어왔을 때 그 예쁜 아이들이 방학 동안 강정천과 구럼비에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겠다. (2011.8.30) 

평화누리통일누리 107호(2011년 7-8월 통권)를 읽고

인천평통사 평화분회

들녘의 농작물에 흰 이슬이 맺히고 가을 기운이 완연히 나타난다는 백로가 지나건만 아직 가을은 저 멀~리 있네요. 평통사 회원님들, 추석은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번 107호 소식지는 7-8월 통권답게 두께부터 차이가 나더니 내용면에서도 저희 기대를 한껏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이번 소식지 내용의 중요한 두 축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과 7.27평화협정한마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 투쟁(이하 강정마을 투쟁)은 사안이 워낙 시급하고 중요하다 보니 연이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호 첫 기사로 '세계의 평화 강정으로부터!' 에는 강정마을투쟁에 대한 당위성과 투쟁 과정, 그리고 타국의 반응을 싣고 있습니다. 강정마을투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 평화 활동가 두 분의 강정마을에 대한 글도 참 좋았습니다. 강정마을 투쟁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호에는 새로운 내용의 기사가 있었는데.... 아시죠? 평통사 청년모임에서 기고한 <작은연못> 영화이야기입니다. 영화에 대한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를 직접 본 소감까지 적어 신선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평화협정한마당에 관한 기사도 소식지에서 많은 면을 차지하였지만 7-8월 통권 특성 상 다소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난관 뚫고 다시 시작되는 6자회담' 기사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잘 정리되어 있어 남북대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소식지 표지이야기로 가정마을지킴이 세분 사진이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힘주는 응원문자를 부탁하면서 정작 문자를 보낼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아 응원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다는 변명아닌 변명이었습니다. ^^ 지면상으로나마 강정지킴이 세 분께 무한 응원의 에너지를 짹짹 보내 드리니 자, 받으세요!!

항상 홀로 소식지를 만드시느라 분투하시는 홍보팀장님께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호까지 여러분 안녕.... 

<평화누리통일누리>에 참여하세요~

사진이야기, 여행기,
모임 참가 후기,
영화평, 서평 등
생활글을 모집합니다.

마감 : 매월 15일

메일 : spark946@
hanmail.net

담당 : 홍보팀
(02-711-7292)

서울평통사

(30차 테마사강방) 제주 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
정세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9/22(목), 오후 7시. 향린교회에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를 모시고 제주해군기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략적으로 결코 필요한 군사기지가 아니며, 기지 건설은 물론 기지의 운영에도 어마어마한 혈세가 들어갈 게 뻔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날 강연회는 약 7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주 강정을 지키기 위한 현장 활동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제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로부터 지키기 위한 현장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9월 3일(토), 전국대책회의에서 추진한 '놀자 놀자 강정 놀자'에 서울 회원들도 평화비행기에 동승하거나 미리 제주에 내려가 함께 강정마을을 지키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전날, 구럼비로 내려가는 유일한 통로인 농로 삼거리에 경찰병력이 들어와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을 무더기로 연행하고, 농로를 차단하는 펜스를 쳐 놓은 상태여서 참가자들은 구럼비로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또 추석 전까지 제주 지역에서 평화버스를 조직하고, 제주 도민들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함께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제주 공항과 제주 시내, 5일장이 서는 시장에서 선전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코사마트 앞 사거리에서 열리는 촛불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는 수요 평화 촛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9월 7일(수), 보신각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남현 회원



9월 14일(수),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보신각 평화촛불 (사진:뉴스시스)

9월 7일과 14일 저녁, 종로 보신각 앞에서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와 수요평화촛불이 타올랐습니다. 1인 시위에는 김진철, 신재훈 운영위원과 박희정 구로금천 운영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수요 평화촛불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촛불로 진행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전도 함께 벌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서명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SNS 등을 통해 수요촛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사무국장 황 윤 미

부천평통사

꼭 지켜내고 싶은 강정!



강정! 흔히들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선다 합니다.

우리강토 그 어떤 곳도 군부대, 기지, 안보라 말만 붙이면 정부는 공안물이식으로, 폭력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택에서도 그러했듯이, 이제 제주 강정에서도 해군과 경찰이 한몸이되어 제일강정을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지킴이들의 평화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 육지(?)들은 강정에 들어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제주 경제를 위해서 제주도는 물론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전체의 평화를 깰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나섭니다.

역곡, 부천, 송내, 공항 등 전철역에서 강정의 현재 소식을 알리기 위해 큼지막하게 준비한 피켓과

홍보물을 챙겨 그날 그날 시간이 되는 회원들과 함께 부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여느 1인 시위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빙 둘러서서 피켓에 적혀 있는 문구를 유심히들 봅니다. 어떤분은 고생한다면 커피도 사다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제주도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 적극적으로 모금도 하고 서명도 받아라!” 하시는 분,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트윗에 올리려고요.” 하는 분, 회원들이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하루종일 일터에서 씨름을 하다 저녁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또 다시 움직일수 있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이글을 보는 회원, 후원회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정마을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제일강정'을 지켜냅시다!!

‘지리산 생조 시물레이션!’

— 10월 평화사랑방에 함께해요 ^^

평화사랑방은, 분기별로 열어 회원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단합도 하는 날입니다.

9월에 했어야 하는데 제주 강정 실천과 강사님의 일정 등으로 이번에는 10월 8일(금), 늦은 저녁 9시 30분에 열린답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하하, 일상적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에 대해 재미난 강의도 듣고 실제 해보기도 합니다. 자주 하지 못하는 교육이니 많은 회원, 지인들이 함께 하면 더 재미날 것 같습니다. 

| 공동대표 주 정 숙

인천평통사

8/13 “청소하고 돌려놔!” 부평미군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족구 인천시민걸기대회



걷기대회 참여한 김일희상임대표님과 회원들,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4시 부평공원을 출발하여 부평공원~주한미군폐품처리장(DRMO)~우성아파트~부평미군기지정문까지 걷기대회를 하며 조속한 한미 공동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8/16 광복 66주년 한반도 자주 평화 통일 범국민대회



8.15대회에 참가한 회원들과 함께 “힘내라 강정! 지키자 평화!”

8/16~19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대 족구 1인시위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기간 동안 부평역 지하분수대 앞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UFG전쟁연습의 문제점을 알리는 1인시위와 홍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8/20 회원모임 ‘누리분회’ 결성



한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희망시국대회 집회장에서 ‘누리분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누리분회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건설노동자 회원들의 모임입니다. 누리분회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9/9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지화 족구

추석 귀향선전전



추석을 맞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는 시민들에게 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인천항 터미널에서 귀향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정마을 얘기 알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 꼼꼼히 읽어 보셨습니다. 올레길꾼들도 올레 7코스길이 없어진다는 것에 무척 안타까워하며 해군기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한 시민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널리 알려주시고, 여력이 되면 평화버스 타고 강정마을도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상보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1시간 30분만에 가져간 홍보전단 500장이 동이 났습니다. 

| 교육부장 김 강 연

[알립니다]

■ 신입회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대준님, 최은선님, 맹재흥님, 김석중님

대전 충남평통사

충남농민들과 함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온다. 계속되는 비소식에 농민들은 마음은 타들어 간다. 그래도 오늘은 1년에 단 한번 있는 충남농민 한마당 행사날(8월 12일)이다.

충남 농민분들에게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사진전을 진행하였다.

초반에는 실내에 전시를 했는데, 관람객(?)이 별로 없어 비가 좀 그친 후에는 실외로 전시를 옮겼다. 늘 평통사 활동에 지지를 해주시는 농민분들의 격려와 모금이 이어졌다. 고된 농사일에 지친 몸이지만 항상 밝게 웃으며 함께 해 주시는 충남농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북녘 어린이가 동기 밀가루 약100만포 지원



9월15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대전 충남운동본부에서 작년 10월부터 두달간 통일쌀 모금이 드디어 북녘으로 향했다.

그동안 연평도 이후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통일쌀을 보내지 못했는데, 인도적 대북지원 물품의 선별적 승인과 북측의 식량사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쌀 대신 분

출 가능한 품목인 밀가루로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

통일쌀을 보내지 못하는 아픔과 아쉬움은 있지만, 북녘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후에는 통일쌀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계룡대 해군보부앞에서..



9월 16일 제주 강정마을에 다녀온 후 다시 계룡대 해군본부 앞 1인시위를 진행하였다. 유병규, 원용철 공동대표의 참여로 함께 피켓을 들었다.

잠시후 헌병대 수사관이 나왔다. 보고를 해야 한다며 내용을 적고,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 말없이 돌아갔다. 이미 그들은 평통사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룡대 해군본부 앞은 차량만이 이동할 뿐이다. 육군, 공군은 여전히 남의 일처럼 지나치고, 해군은 인상을 쓰거나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한다. 해군 차량이 지나갈 때면 마음은 더욱 분노스럽고, 피켓은 그들의 눈을 찌른다.

1인시위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계룡산 동학사 인근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평통사 회원이 운영하는 주막이 있다. 모든 음식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파전과 비빔밥은 아주 일품이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 늘 과식하게 된다. 맛집으로 강력히 추천한다. 

| 사무국장 장도정

군산평통사

군산 미군기지 환경범죄 해결 촉구 대시민 캠페인 전개!!!



군산 미군기지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대책위원회 주최로 기름유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주민조례 제정 등을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8월 11일, 18일, 27일 평통사,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대책위 참가단체 회원들은 은파유원지 수변무대와 월명공원 내 군산청소소년수련관 앞에서 산책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적극적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8월 17일에는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산기지 앞에서 군산기지 환경범죄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역수같은 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의 결의는 높았습니다.

강정마을 평화축제에 참가!!!

8월 6일 군산지역에서 김연태 대표를 비롯하여 서장호, 문정숙, 위양자, 김판태 회원과 전희남씨 등 6명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정마을 평화축제에 참가했습니다. 4년 동안 힘들게 투쟁해 온 강정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 육지와 제주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등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9월15일부터 17일까지 김판태 사무국장은 제주

강정마을 방문하여 강정주민들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선전전을 지원하는 투쟁에 참가했습니다.

4차 희망버스 저극 참가!!

8월 27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4차 희망버스가 군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연태, 문성주 대표님과 서장호, 문정숙, 김성훈, 박준희, 오금수, 유재임, 김판태 회원, 후원회원들을 비롯하여 군산지역에서 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문화제가 개최되고 독립문 공원까지 행진이 이어지고 전야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는 참가자들이 인왕산 정상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결의를 드높였습니다. 또한 남영역 앞 한진중공업 본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한진 본사 앞에서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2011 군산평화대행진 예정

기름유출, 석면매립, 고엽제살포 등 군산미군기지 환경범죄 해결을 촉구하는 2011 군산평화대행진행사가 10월 1일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1시 30분 자전거행진(군산시청 앞), 2시 본행사(군산기지 정문), 평화대행진(정문~후문), 4시 문화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무국장 김판태

[알립니다]

■ 위양자님 후원회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전주평통사

이소선 어머니 가시는 날



이석영 대표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자식을 먼저 보낸 두 분의 여성!

어느 분이 더 힘드셨을까요? 아마도 그 아픔과 슬픔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6일, 전주 오거리 광장에서 이소선어머니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주평통사 이석영 대표는 추모사에서 “고 이소선 여사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물론 바른 정치, 정의로운 경제, 사회 민주화를 향한 투쟁 대열에 언제나 앞장섰다”며 아름다운 청년의 아름다운 어머니를 추모했습니다. 추모집회에는 전주평통사 회원들도 여럿이 참가해서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회 뒤에는 광장 옆 찻집에서 현장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이석영대표, 이수원, 이재호, 김여진, 권동용, 노백송 회원이 참가했습니다.

따일 284일째(9.17.현재)를 맞는

전북고속버스 노동자들, 흔들리지 않게!

9.15(목) 밤 10시경,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부친상 조문을 갔습니다.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도 조문을 위해 잠시 출옥을 하였는데, 마침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전북 고속 노동자 파업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수원 평통사 운영위원, 이병무 파업대책위원, 정홍근 쟁의부장과 대화를 나누며, 파업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



이수원 운영위원

년 12.8.에 120명이 사상 초유의 파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84~5명 정도의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한 투쟁을 조합원 대다수가 견디어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람의 내공, 힘은 고난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시기 사람대접 받지 못한 압박과 설움이 커져서 쌓였다가 비등점에 이르러 폭발한 게 아닐까 합니다.

또 한 요인은 지도부의 성실한 품성과 시민 사회 단체의 연대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이날 자정이 다 된 시간, 젊은 조합원의 투정에 대해서 활동 원칙을 주시킴과 따듯이 위로해 주는 쟁의부장의 모습에서 믿음과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석영 대표는 어제 대책위원들을 자택으로 초대해서 점심을 대접하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석영 대표, 이수원 운영위원은 버스노조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고 고난 속에서 희망을 일구는 평통사는, 외세와 불의한 자본에 맞짱 뜨는 전선에 서 있습니다. 

| 사무국장 이재호

광주전남평통사

광주전남 평통사 운영위원회

8월 11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14명의 신입회원에 대한 회원가입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문제점과 광주전남 평통사 차원의 대응계획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현황을 공유하고 회원 및 지역단체에 제안 강정마을 평화기행 조직에 대해서도 결의를 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 6월 말 진행한 1차 평화서당의 성과를 이어 2차 평화서당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평통사, 평화통일, 역사의식 고취, 향후 평통사의 중요한 토대 마련을 위해 청년 회원, 회원 자녀, 대학생/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평화기행 모임’을 구성, 진행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9월 18일 1차 ‘청년 평화역사기행’



서종환 부장과 배민혁 회원을 비롯해 회원,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군산 지역을 돌아보는 ‘1차 평화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군산 미군기지’ 순례를 진행 하였습니다. 미군 기지 정문, 기름 유출 지역, 새만금 방향에서 본 미군기지와 활주로 전조등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치 헬기 부지와 하재마을을 방문의 순으로 군산 미군기지 기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 히로쓰 가옥’을 방문 하였습니다. 히로쓰 가옥은 일제강점기 군산 영화동에서 포목상을

하던 일본인 히로쓰가 지은 건물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으로 건립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영화 ‘타짜’의 촬영장소입니다.

다음으로 군산시의 월명산 자락 북쪽 끝에 자리한 해망령을 관통하는 ‘해망굴’을 방문했습니다. 이 터널은 수산물의 중심지인 해망동과 군산시내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1926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군산에 진주한 인민군 지휘소가 이곳에 자리하여 매일 같이 미군 공군기들의 기관총 폭격을 받아 지금도 총알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명공원을 방문하고, 군산 평통사 회원이 추천한 중국집에서 막산 짬뽕을 한 그릇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거쳐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군기지를 돌아보며 우리 땅을 유린하는 미국의 행태가 내 마음과 피에 분노를 일으키는 날이었다”, “평택이나 용산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군산은 손을 대면 금방이라도 깨질거 같다. 오늘 배운것들을 당장 내 생활에서 연결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연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보내진 않으려고 한다. 많은 것을 배웠다”, “지겹게 봐왔던 전투기와 미사일들이었지만 지키는 사람의 눈으로 보다가 나가야 한다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 색다르게 나타났다”, “굉장히 좋았다. 다음에도 대환영”, “군산 미군기지를 돌아보며 다시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의 길에 주한미군들이 결정적인 장애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11월 중순에 1박 2일로 인천, 강화기행을 약속하며 1차 ‘평화역사기행’을 마무리했습니다. 

| 사무국장 정동석

익산평통사

강정마을을 다녀와서

Ⅰ 공동대표 **문영만**

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설립을 거부해야 하는가?
“제주 남방 해역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5% 이상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원유를 비롯한 수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와 보수언론이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워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이와 달리 환경과 평화, 나아가 무력경쟁시대에 생명살림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창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설 곳은 환경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인데다 인근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보호구역이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대규모 군 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가 국제 분쟁의 중심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합니다.

그곳을 지난 9월 5일(월)에 다녀와서 느낀 점과 깨달은 몇가지 사실을 쓰고자 합니다.

첫째,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대척점이 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상태는 가속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 전쟁으로 자국의 군사력 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맹국의 해군력 동원을 극대화하여 미국 주도의 제해권을 유지하려는 해양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한국과 체결한 모든 경제적 수출입과 정치적 회담 등을 재고하겠다고 합니다.

둘째,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절대보전지역> 뿐만 아니라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름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개’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 ‘올레 7코스’가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이 길목이 해군기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함으로 영원히 볼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3일전 급하게 강정마을이 대상지로 포함되었고, 여론조사 또한 졸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는 07년 4월, 여론조사 방법으로 해군기지를 결정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불과 한달 사이에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 희망의사 전달(07.04.26), 제주도의 여론수렴과정(07.05.03),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07.05.14)하는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정마을은 인구가 1,900명 정도 되는데, 2007년 4월 26일 불과 87여 명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결의가 이루어졌고, 도지사는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20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강정동 유치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절차와 과정이 너무나 모순과 불합리로 가득차 있어 마을주민의 절대적지지를 입고 들어서야 할 해군기지건설사업에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통사 식구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함께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통의 현장에서 피와 땀을 쏟고 있는 평통사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평화의 사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위해 불의한 세력과 싸우는 우리 평통사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통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바른 투쟁으로 말미암아 강정마을 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은 강정마을 해군군사기지 건설을 재고하고 폐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은 나의 동산의 파괴를 막아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우리 평통사가 순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해군군사기지 건설이 폐지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 그분의 명령에 순종과 책임을 다합시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기도

Ⅰ 공동대표 **전병생**

이 땅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전쟁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 강정마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말 못하는 바다와 생물들을 무시하고 훼손

하고 짓밟았던 우리의 무지와 오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반도 분단에 반대했던 제주도민 삼분의 일이 서북청년단과 군경에 처참하게 살육 당했던 제주도 4.3사건의 참혹한 역사를 치유하지도 못하고 나아가 진실규명조차도 확실하게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마을 주민, 시민운동가, 종교인등을 연행하고 보금자리를 철거하고 길을 막고 강권과 폭력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현 정부의 횡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화재 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해양보호 구역, 얼마나 소중하였기에 세계가 보호하고 수호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해군기지를 만들고 수많은 어종과 수많은 자연유산과 수많은 문화재들을 콘크리트로 다 도배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주마을과 나아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해군기지가 들어서지 않도록 강력한 통치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국민이 방방곡곡에서 분연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부와 야권이 귀를 열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풀 한 포기, 돌맹이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되며 일이 앞당겨 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산평통사 공동대표인 문영만 목사님과 전병생 목사님의 강정마을을 위한 기도문을 실었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8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8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

[대표/임원] 강정구 권정호 김성운 김창환 문홍주 문규현 박용일 배종열 변연식 윤팔병 이일영 장경옥 정혜열 홍창의

[후원금] 향린교회 새길기독사회문화원 푸른마을교회 강남교회 향린청남신도회 통일광장 권현영 신희정

[특별회비] 문규현 윤팔병 서울평통사

[후원회원] 강영태 김기준(2개월) 김병래 김성순 김영철 김용순 김점수 김준기 김준철 류미아 문영진 박정례 박철중 박춘원 서경숙 양동일 양우성 오민주 오주연 유광수 유광희 윤치호 이광수 이성호 이우영 이은혜 이창우 임순래 장성두 정화선 최재영 황 완 황재선

[계주회원] 고건일 양윤모 양윤호

[강경투쟁 특별후원금] 고정식 권병근 이상재 이재욱 이일영 글로벌네트웍스 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안동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서울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애란 강양원 강영옥 강유겸 고정섭 고순계 고예정(2개월) 고이지선 공동길 박상진(2개월) 구수영 권영무 권치홍 권혁분(2개월) 가동서 김각영 김경자 김규태 김균열 김기수 김동훈 김두산(2개월) 김명일 김문영 김미영 김민이 김보경 김석민 김선희 김성운 김슬기 김승현 김연옥 김영리 김영진 김영진 김유석 김은미 김은아 김일수 김재현 김정은 김경자 김종일 김종일 김종환(2개월) 김지수 김진한 김창옥 김중래 김한성 김향연 김현애 김혜숙 김희수 김화순(2개월) 김후중 김희국 김희영 김희현 나영훈 나현대 나혜영 남미영 노은아 류시자 문경희 박경혜 박명숙 박상철 박상호 박석분 박선자 박순환 박은봉 박정수 박정자 박정훈 박종기 박찬주 박철현 박후임 박희성 박희정 방만식 서동원 서보혁 서정호 서창식 서황석 신소진 선순단 손영래 손우정 손운희 손은정 송금심 송영자 순상환 신소영 신재훈 안건모 안병선 안병순 안일룡 양순주 양창호 여혜숙 연선민 오미정 오행진 오현실 오혜경 우미정 원영진 위보라 위선남 유영재 유영철 유효상 윤영수 윤영일 윤영진 윤재승 윤호상 이경식 이경옥 이경희 이광숙 이광종(2개월) 이남현 이덕희 이병용 이병일 이상근 이상기(이경은) 이상희 이선옥 이선재 이성형 이소영 이수철 이순혁 이승규 이승무 이승민 이애용 이영옥 이윤 이윤영 이은영 이종남 이종민 이창호 이혜삼 이현숙 이현준 이혜영 이혜진,박승렬 인민지,김종남 임동원 임보라 임승현 임영인 임장혁 임태래 장남희 장성식 장숙이 장희수 정귀남 정동희 정미교 정상환 정선영 정순영 정애경 정은선 정준영(2개월) 정지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안나 지은정 진태춘 최대욱 최미화 최성민 최성학 최영숙 최정옥 하보애 한기황 한문덕 한상근 한상옥 한중현 한호석 함재규 허정섭 허현중(2개월) 현동식 형복순 홍문수 홍봉현 홍승완 홍영의 황규근 황 선 황윤미 황호정
* 후원금 감사합니다 : 최무영, 여성분회 노동들

부천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신광 강혜선 과노중 구자춘 구현모 권혜숙 김남희 김덕근 김민옥 김성근 김성용 김성훈 김숙희 김숙희 김인영 김정례 김정은 김경호 김종대 김주영 김지숙 김진숙 김현숙 김호진 나종관 노은하 문은정 민경진 민정례 박병준 박석진 박숙경 박영민 박인호 배영미 백창식 서경숙 서혜숙 석의정 성명수 성명은 소우영 손종욱 송봉훈 신선정 신창호 신정길 심영섭 심영오 양난영 유승우 유정영 윤영근 이광희 이리나 이병훈 이보영 이상수 이숙주 이숙진 이영아 이영재 이옥화 이종주 이준훈 이현주 이혜련 임재경 임현순 임현철 장동환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승현 정용진 정인조 조기대 조미옥 조민우 조영진 주명숙 주옥현 주정숙 주호현 지은희 지태봉 차복래 차정은 최경순 최규관 최혜정 최희준 허민영 현지환 홍경희 홍진표

황영신 황영희

인천평통사

[회원회비] 고상주 고영남 박준경 구완모 권창식 김갑중 김갑중 김강연 김대영 김맹규 김문경 김미양 김민서 김백수 김병철 김보희 김선미 김오섭 김은영 김의균 김일희 김철녀 김종선 김주숙 김중찬 김창수 김태영 김호영 김희겸 남익현 두현진 민선숙 박광선 박병식 박순길 박순이 박승문 박승주 박윤희 박유순 박인호 박창훈 서경석 서경혜 서영선 서재경 서재훈 서화조 석원희 손선재 송영주 송재철 송정로 신동훈 신창균 신창선 신필녀 안영봉 안용국 여영석 오금옥 오수정 오현근 용혜량 원용한 유근석 유원희 유정섭 유한경 윤인중 이남희 이무섭 이무용 이상준 이성은 이세구 이승희 이용근 이용수 이은직 이용하 이재병 이재운 이재형 이정옥 이재학 이종훈 이주는 이준걸 이종각 이춘식 이현구 이홍만 이희환 인수범 임재훈 장광수 장동훈 전희구 정동민 정서진 정승호 정시호 정유성 정재훈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조경숙 조남순 조성혜 조승현 조인휘 조태욱 주병준 진재환 차광호 최성목 최영준 최종탁 최현호 추영호 한상옥 한상현 한연숙 한영순 한정숙 한중현 홍 종 홍학기

[후원회비] 강숙현 강영구 강원희 고성임수산나 고숙희 김경순 김금옥 김명숙 김명중 김민정 김상기 김소희 김연중 김영호 김경대 김준태 김준한 김지수 김지은 김태현 김현주 김희숙 노경희 명은실 문경진 문병호 문선희 박미정 박명화 박순덕 박순희 박영민 박혜숙안젤라 백은정 부평1동성당 서덕용 소병욱 송경평 송금화 송한석 강재순 신윤래 신정은 심재진 안원자 안용봉 오석근 오성기 오종춘 오창근 오혜영 유재원 유정희 유한성 유현섭 윤성우 이경호 이대준 이덕규 이미경 이병란 이성의 이승미 이승천 이옥희 이용근 이은희 이재규 이진범 이종일 이형진 이혜경 이혜정 이화진 임경희 임동렬 임병구 장귀숙 전영우 정동근 정명락 정윤엽 정지상 정희진 조두환 조영정 조은진로사리아 조재호 조태영 조현숙 지사모신부들 최복래 최 웅 최은선 최정옥 최현숙 하태준 허분애 허필자 황선하

경기남부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상옥(2개월) 강지에 권혁범 김상용 김주성 김창환 김택균 민영완(2개월) 손영인 신상철 신종원 오영미 윤귀성 이근랑 이상진 이수용 이양진 이우곤 이은우 이종필 이창근 이진희 장창원 정만진 정인교 조재길 재한석 추영배 한은숙(2개월) 혜조스님 황명선 황재순 현호현

대전충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훈 강민영 고광성 고준택 구분중 구영분 권길성 권선필 권승현 권영훈 길병민 김경구 김경숙 김기수 김기현 김도석 김미연 김미옥 김상중 김성자 김승진 김영석 김영숙 김용일 김윤옥 김재복 김경호 김종성 김종필 김지수 김현식 김홍업 김홍수 나백주 노청래 류기형 류성훈 문양로 박영철 박인기 박혜경 박희인 변지숙 변혜숙 서기순 서기자 서영완 서영희 손근식 손정희 송관옥 송신근 송원준 송인준 신선정 신주의 신현정 신희철 안학수 양성호 엄청나 오명세 오무광 오수철 오순자 오은아 원용철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요열 유윤우 유장환 유종철 윤병민 윤상렬 윤혜경 윤효권 이건용 이경아 이미옥 이병연 이성휘 이세중 이순옥 이승철 이영주 이요한 이용우 이재우 이정학 이종명 이종원 이지연 이찬규 이춘자 이현호 이화자 임인수 임재현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전순옥 전은경 전해련 정보영 정선원 정성삼 정창식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병현 조봉현 조부환 조성균 조성미 조영주 조재천 조주형 최기호 최영규 최영민 최정길 추교하 한상열 한연환 한용세 함필주 허민정

군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정식 고차원 김경수 김기수 김도길 김동준 김미주 김성수 김성태 김성훈 김신중 김연태 김오수 김인수 김준근 김진환 김판태 김효성 노경두 노승민 라귀인 문규옥 문성주 문영용 문정숙 박미라 박영배 박영희 박종수 박종대 박종문 서경희 서동완 서창호 선진숙 손영훈 송상구 신수철 양수철 양은희 엄미숙 여성구 오금수 오병철 유승기 유재일 유하영 위양자 이계택 이민우 이봉호 이상호 이종인 이현주 임보영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전혜숙 정진희 정동훈 정 란 정 민 정옥진 정창완 조규춘 조성옥 조재웅 조판철 채영호 최광문 최대준 최소영 최영목 최용진 최이화 최재석 하운기 한성자 황현정 황현정 황두만 홍지창

익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익현 김병근 김아름 김유순 김주훈 김현숙 김희진 박두식 박영배 박영진 박용호 박근경 박재운 방용승 송동환 송재기 송 철 양재석 양정순(2개월) 오기주 오동선 이병식(2개월) 이성교 이용숙 이용신 이윤석 이창우 이종구 이진규 장수나 전호일 전호정 정소영 정운송 정은주 천광수 최갑선 최미화 최민옥 최영이 최재철 최희숙(2개월) 허정길 현주억 황영하 황인철 전병생 문영만 김동우

전주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대권 권동용 김민정 김수돈 김여진 김영순 김영호 김재병 김중만 김효숙 노재화 문화규 민혜경 박낙균(2개월) 박상희(7개월) 박우성 박원희 방용승 백혜영 서경미 심병호 양정자 양진규 오은미 유미혜 유영진 이기봉 이기환(2개월) 이동주 이민경 이보희 이석영 이슬림 이숙희 이희희 이재호 이종태 이종화(12개월) 이중희 장정우 장종철 정재철 정찬홍 정형용 조경희 조인정(2개월) 주용기 최금희 최병호 최정옥 허만승(2개월)

광주전남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득룡 강복현 강용재 강위원 강의준 강정원 고병국 고영민 고정석 고희문 박길승 구규승 권용식 권철용 기원주 김경윤 김경일 김경태 김관주 김광택 김광수 김광식 김국용 김기만 김누리 김대성 김대열 김대현 김덕현 김도균 김동열 김 문 김미경 김미숙 김민태 김범종 김병균 김병기 김병모 김병태 김선발 김선일 김선태 김선호 김성룡 김성철 김수경 김수미 김순종 김승태 김양수 김영석 김영위 김영호 김옥길 김완진 김요섭 김용성 김용재 김윤경 김은근 김은숙 김은희 김인숙 김재길 김재현 김재현 김정태 김정호 김준희 김진근 김철현 김정필 김태욱 김행연 김현주 김호산 김희식 김희용 나성근 나옥석 나종필 남부원 노기탁 노병남 류승환 류철환 리 역 마대중 마삼진 마승희 모영현 문영란 문유신 문은조 문재식 문행귀 박광순 박광은 박귀순 박규상 박명섭 박미라 박병섭 박병용 박삼석 박상복 박석민 박석환 박선이 박소정 박승규 박승옥 박승재 박영자 박영진 박오열 박옥열 박 윤 박윤수 박재욱 박정훈 박종명 박종삼 박종섭 박종주 박종찬 박종재 박종태 박종택 박주순 박창균 박필수 박용순 방진식 배경섭 배무궁 배민혁 배영일 배영찬 배정섭 배충진 백금렬 변덕중 서상용 서정대 서창호 소재삼 손민식 송병준 송봉섭 송진환 송호철 송효현 신화규 심창남 안병일 안성래 안종기 안희만 양순규 양승집 오공희 오근선 오대경 오승경 오승주 오옥목 오철용 오혜균 오형옥 유영순 유옥상 유원상 유종천 유진이 유근구 윤동주 윤영택 윤영배 윤은서 윤종근 윤홍연 이광교 이광철 이계양 이교창 이귀일 이규향 이기호 이기훈 이병연 이상범 이선휴 이승형 이수빈 이승진 이승현 이양범 이영기 이영형 이원열 이용대 이용섭 이용인 이용범 이윤옥 이재광 이재택 이재명 이재인 이재창 이재휘 이정학 이정훈 이준경 이준식 이철우 이태석 이태욱 이향재 이현수 이형민 이희수 임광석 임대명

임원택 임재점 임현삼 임홍택 장관철 장귀영 장덕자 장두석 장세근 장애란 장연승 장우광 장주섭 전승룡 전영남 정거섭 정경호 정기대 정길주 정동석 정록호 정석기 정승룡 정승창 정영완 정영호 정옥재 정유철 정일태 정종득 정종석 정찬록 정찬명 정철주 정행안 정현경 정형달 정혜원 정홍균 정희억 조용석 조창두 조현자 주근호 주승민 진재영 채일순 최병상 최 성 최성민 최영수 최영주 최용호 최은숙 최홍률 최지연 최진연 하송학 한강희 한명철 한봉철 한해숙 허종 홍석주 홍용식 완도제일교회 광주민들레교회 광주무등교회 광주큰사랑교회 광주무진교회 무안용화교회 강진병영교회

안동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강민석 강석주 권영희 권정에 권주원 김두빈 김병희 김수동 김승균 김영애 김옥희 김인숙 김정석 김경희 김주철 김지섭 김창환 김춘섭(2개월) 김판갑 김현택 김혜배 김현숙 류춘우 민현주 박명배 박무식 박용재 박재근 박종규 박화무 배오직 배용한 손현목 오덕훈(2개월) 우성섭 윤지홍 윤 창 이규중 이병현 이천우 이태환 이혜선 이형찬 장호철 정복순 정철환 조선아 조한웅 최난희 최형석 피재현 한상용 한철희 한영선 함석호

대구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원] 고정수 고희림 고희림 박규운(2개월) 구인호 권항숙 김대식 김동필 김병길 김상임 김영석 김영숙 김옥희 김진영 김현택 나미숙 남태우 맹철호 박기백 박문수 박배일 박상완 박성민 박소은 박수봉 박순중 박재범 박재홍 박진강 백창옥 서수녀 손영준 송철환 신동수 양승호 염상현 유소희 윤병태 이병수 이상술 이영수 이영훈 이오식 이옥희 이준원 이창우 이창주 이혜령 장성대 전창훈 전호관 정경식 정민규 정병록 정용섭 정우달 조규진 주경봉 차상혁 하재철 한상옥 허정호 황병윤

부산평통사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진우 김남기 김동석 김유중 김재연 김지영 김창호 석혜진 손재현 신봉스님 안명준 이경희 이덕순 이월선 이의직 이종명 이화진 전순홍 정성복 조관래 최영희 최용호 최재수

김제평통사(준)

[회원회비와 후원회비] 김영기 김영미 김용환 김익현 김진원 김형애 나현균 남궁윤 노기보 노영용 박기주 박정하 박종혁 방원필 선창주 손은하 업영애 오명연 오은숙 오인근 유성룡 유재흠 이봉원 이수금 이용만 이태영 이현승 임승기 장덕상 정안석 최규섭 최승선 최호길 황승린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구 김경호 노재열 임승재 조현정 홍영진

[후원금] 강진희 고효완 김기오 김미령 김창병 류승하 민경숙 박복희 이근수

이법준 이선열 이왕재 정향란 조미향 한양재

* 관련 문이는 지역평통사 사무국이나 중앙 사무처 총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 평통사 회비 납부 계좌는 맨 뒷면을 참고하시고, CMS 자동이체 신청하실 분은 지역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면?

위키리크스... 컴퓨터 해커 출신 저널리스트 줄리안 어센지가 대표로 있는 비리 고발 사이트입니다. 작년 11월, 이 사이트는 전세계의 미국 대사관에서 미 정부에 보낸 25만건의 보고서를 폭로하였습니다. 주한미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보낸 보고서도 당연히 있었지요. 주로 한국의 정부관리나 정치인들이 주한미대사를 만나 발언했던 한국의 정치, 외교, 군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에 적나라해서(?)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지요.

2007년 대선 직전, 당시 BBK 주가조작 혐의로 위기에 처한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원장 유종하는 버시바우 당시 주한미대사를 만나, 사건의 중요 증인이자 피의자였던 김경준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미뤄달라고 부탁합니다. 김경준이 입국해서 BBK 사건과 관련해 발언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가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김경준의 입국은 미뤄졌고, 이명박 후보 측이 그 댓가로 미국정부에 지불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2008년 2월, 주한미대사관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4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한미FTA의 선결조건인 쇄고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08년 1월에는 이명박 당선자가 “미국산 쇄고기가 좋고 싸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했지요.

2008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은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게 “이 대통령은 뻗속까지 친미·친일이니 시각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 관리들을 볼까요? 2007년 8월,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공식서명 직후 쌀시장 개방 확대 차원의 협상을 약속했고, 2006년 7월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미국이 반대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자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자랑했습니다.

2011년 9월 16일, 한미간의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쳐 5년째 표류하

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했습니다. 10월 13일 미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대통령에 줄 선물이겠지요?

한미FTA가 체결되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이 위태롭게 되고,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각종 투기자본이 정부의 정당한 규제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농업이 위태로워지고, 대기업형 슈퍼(SSM) 규제가 불가능해지며, 중소기업 제도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거기다 약값폭등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불안해집니다.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에서 보듯이 한미FTA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의 위기를 한국에 떠넘기는 제도이지요.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국익과 국민생활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키리크스 폭로 문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외교통상관리들은 우리편이 아니라 미국편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07년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이름을 달고 국회예산을 통과한 이 사업은 2009년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이름으로 제주도와 국방부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항구’로 둔갑합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또다른 제목의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항지’가 ‘항구’로, ‘해군기지’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지요. 실제 강정마을에 지어지는 것은 합정 20여척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군사기지입니다. 또 하나, 15만톤 대형크루즈 2대가 접안할 수 있다는 크루즈항이 사실은 항공모함 맞춤형이었다는 것이 엇그제 밝혀진 내용입니다.

“설마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겠어?”

“네!! 적어도 한국에선 비밀비제 합니다”

“.....”

여러가지 이유로, 이번호 회지가 많습니다. 무척 송구합니다.

10월호는 조금 더 두껍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